

고려후기 문신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의 정치 인생과 인적 네트워크

裴圭範

華中師範大學 교수, 한문학 전공

882728@naver.com

- I. 머리말
 - II. 이인복의 가계와 가풍
 - III. 이인복의 정치 인생
 - IV. 이인복의 인적 네트워크
 - V. 맺음말
-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AKS-2019-R-07).

I. 머리말

원 간섭기는 고려의 국가시스템이 복잡하게 작동하던 시기로, 이른바 지식인층은 원 제국과 고려를 사이에 두고 다양한 유형으로 제 삶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문벌을 배경으로 착실하게 문사의 길을 걸어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다가 하면 혼란해진 사회에서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가문의 영광을 열기도 했다. 원으로부터 유입된 성리학은 이 시기 지식인층에게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원 간섭기의 혼란상은 그 이상의 갈등과 좌절을 함께 맛보게 해 주었다. 초은(樵隱) 이인복(李仁復, 1308-1374)은 충목왕 대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뒤, 공민왕 대에 이르러 정치적 황금기를 보낸 인물이다. 그의 삶이 주목되는 이유는 처세라는 명분으로 변절과 도피가 난무하던 시대에 탁월한 개인적 능력을 갖추었고, 동시에 군주를 향한 절개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의 가문인 성산이씨(星山李氏)는 원래 향리 집안으로, 조부인 이조년(李兆年, 1269-1343)에 이르러 명문가로 발돋움한 신흥문벌이었다. 이조년은 충혜왕에 대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낙향하여 명성을 날렸다. 또한 정반대의 성격으로 평가되지만 이인복의 아우 이인임(李仁任, ?-1388)은 당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공민왕대 후반 정국을 이끌었다. 한편 이인복은 국자감시(國子監試, 1326), 예부시(禮部試, 1326)는 물론 원의 회시(會試, 1342)까지 급제하여 문명을 떨치기도 했다. 공민왕은 능력과 성품을 갖춘 그를 적극 기용하여 혼란하고 변화무쌍한 정치상황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겼고, 그 역시 공민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현재 이인복의 작품은 『동문선(東文選)』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시 23제 29수와 산문 3편이

산재되어 있다. 『고려사』 「열전」과 이색이 쓴 묘지명도 있지만, 인물의 비중이나 활약상에 비해 그에 대한 자료는 매우 소략한 편이다.¹

본고는 비록 제한된 자료지만, 원 제과급제자로서 탄탄한 실력과 함께 굳은 절개로 공민왕대를 살았던 이인복의 정치인생과 그가 맺었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1318년 안진(安震, ?-1360)을 시작으로 배출된 고려인 원 제과 급제자들을 일군의 그룹으로 묶고² 그들이 가진 유학자로서의 시대적 사명감과 성리학 수용기의 역할, 문학적 경향과 고려 문단에 미친 영향, 여원(麗元)에 걸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한중문화교류 등으로 연구의 초점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
- 1 지금까지 이인복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손갑호의 「麗末文人 樵隱 李仁復의 文學世界 研究-東文選 收錄 作品을 中心으로」(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편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이인복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조일신의 난, 李仁任 정권 등 정치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있어 도움이 된다. 고혜령, 「이인임 정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91(1981); 김지희, 「고려 우왕대 이인임 세력의 혼인이 인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연구』 제30호(2016); 김병인, 「고려공민왕대 조일신 난의 성격」,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7); 김보경, 『고려 공민왕대 문인의 의식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또한 이 시대 사대부들의 성격과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되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 2 필자는 '고려 후기 문인들의 중국체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우선 원나라 제과 급제자를 하나의 정치적·문학적 그룹으로 묶어 그들을 중심으로 원 간섭기 지식인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원 제국에 대한 인식태도를 분석하고 있다. 그 출발은 가정 李穀이었다. 출처, 「『稼亭集』을 통해 본 李穀의 육망 추구와 인간적 고뇌」, 『大東漢文學』 제55집(2018); 「14세기 전반 고려문인의 사회적 육망 탐구: 가정 李穀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제56집(2018); 「李穀의 『稼亭集』을 통해 본 14세기 전반기 인적 네트워크의 양상」, 『東洋漢文學研究』 제53집(2019).

II. 이인복의 가계와 가풍

이인복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조부 이조년이었다. 이조년은 일찌감치 이인복의 자질을 알아보았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잘 짓자 항상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가문을 크게 일으킬 사람은 바로 너로다.”라고 격려했다.³ 이조년은 향리출신에 불과했던 성산이씨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다.⁴ 위로 문과에 급제한 이천년(李千年)이 있었지만, 충숙왕대와 충혜왕대에 걸쳐 대범함과 굳은 절개로 명성을 떨친 이조년에 의해 명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인복은 그런 조부에 대해 “악한 것이면 원수같이 미워하셨고, 남의 급한 일에는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달려가 구하셨습니다.”고 평가하며 “나는 일생을 두고 이를 사모하고 배우려 하여도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기도 했다.⁵ 이는 단순히 자기 조부에 대한 맹목적 상찬과 자신의 겸양이라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간에서 그가 조부가 가진 강인한 정신과 의(義)를 향한 실천력을 경모(敬慕)하고 있음을 분명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그의 삶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이조년의 시대 분석과 자신의 선택은 아래 시에서도 엿보인다.

爲報栽花更莫加 꽃을 더 보태어 심지 말라 일러주노니
數盈於百不須過 수가 백에 차거든 부디 거기서 멈추시길.

- 3 『高麗史』 卷112, 列傳25, 「李仁復」.
- 4 이인복을 중심으로 한 성산이씨 가계도는 『星山李氏派譜』, 『東文選』 권124 「李兆年墓誌銘」, 『東文選』 권126 「李仁復墓誌銘」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손갑호(2004), 앞의 논문, 〈표1〉 樵隱의 家系 14쪽 참조.
- 5 李穡, 「有元奉議大夫征東行中書省左右司郎中高麗國端誠佐理功臣三重匡興安府院君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諡文忠公樵隱先生李公墓誌銘(이하 李仁復墓誌銘)」, 『東文選』 卷126.

雪梅霜菊清標外 눈 속 매화와 서리 속 국화의 맑은 운치 외에
浪紫浮紅也謾多 혼한 자줏빛과 경박한 붉은빛은 실없음이 많으니.⁶

원 간섭기 고려 정계는 충렬왕과 충선왕의 알력과 중조(重祚)로부터 시작해, 충숙왕과 충혜왕의 중조, 이후 유주(幼主) 충목왕·충정왕의 단명기(短命期) 등 폭풍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인층의 개인적 이익을 향한 정치적 이합집산과 변신은 살아남기 위한 합법적 모색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암묵적 동의를 얻었다. 개인적 이익은 사제(師弟)의 인연도, 친족이라는 혈연도 능가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그것은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향연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조년은 이토록 흐린 시대에서 확고한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는 온갖 꽃 만발하는 정원보다는 설중매(雪中梅)와 상국(霜菊)의 맑은 운치를 사랑했다. 이 시의 무대인 백화헌(百花軒)은 경북 경산에 있는 누대로 온갖 꽃들로 장식된 조경으로 유명해 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⁷ 아름다운 꽃들을 감상하는 그런 곳에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백 개 이상의 꽃은 더 이상 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백화의 속성으로 든 ‘만(謾)’자에는 교활하게 속인다는 의미가 있다. 알록달록 어여쁘지만 그 속에 숨은 가벼움보다는 매화와 국화의 맑은 운치를 강조한 것이다. 이 시에는 그의 유학자로서의 강직한 성품과 높은 덕망이 잘 드러나 있다 하겠다.

6 李兆年, 「次百花軒」, 『東文選』 卷20.

7 李穀은 충목왕 사후 공민왕 즉위 운동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1349년(忠定王 1) 5월 충정왕이 즉위하자 즉각 도피성 유람을 떠난다. 그리고 9월말, 興海·漆谷·京山을 지나 처가인 寧海에 도착하여 이곳에서 겨울을 보냈다. 이 무렵 경산에서 7언절구 「次京山府百花軒詩韻」(『稼亭集』 卷20)과 7언율시 「次京山府南樓韻」(『稼亭集』 卷20) 두 시를 지었다. 내용은 인생무상과 아름다운 누대의 풍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또한 李穀은 李天年이 경산에 세운 小學의 기문(「寧海府新作小學記」 『稼亭集』 卷5)을 지어 그 의미를 칭찬하기도 했다.

이인복이 조부 이조년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은 아래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夷險忠誠竟不渝 평탄하나 험하나 그 충성은 끝내 변하지 않아
曾隨永廟入燕都 일찍이 영묘를 따라 연도에 들어갔다
同車只有吾文烈 동행한 이는 오직 우리 문열이 있었거니
行到重泉得見無 지금 중천에 이르러 서로 만나 보는가?⁸

이 시는 익재 이제현을 추모하는 만사(挽詞)다. 1367년 7월, 이제현이 사망하자 당시 판삼사사(判三司事)로서 최고위직에 있던 이인복이 예전 조부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지었다. 이제현과 이조년이 영묘(永廟, 충혜왕)를 따라 연도(燕都)에 들어간 해는 1340년 12월로, 단사관 두린(頭麟)에 의해 충혜왕과 조적(曹頌) 반란 가담자가 모두 대도(大都)로 압송되었을 때이다. 1339년 3월, 충숙왕이 향년 45세로 사망하자 충혜왕은 2차 즉위하게 된다. 하지만 엘테무르(燕帖木兒)를 밀어내고 원 조정의 새로운 실권자가 된 바얀(伯顔)은 숙위 시절 방탕했던 충혜왕을 ‘발피(撥皮)’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다.⁹ 바얀은 그의 왕위 계승을 승인하지 않고, 심왕(瀋王) 왕고(王高, ?-1345)를 지지하고 나선다. 이런 원 조정의 분위기를 틈타 왕고의 핵심측근이던 조적은 8월, 개성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충혜왕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넘기고 반란 진압에 성공한다. 그런데 원 조정은 11월, 충혜왕을 소환하여 형부에 하옥하고는 조적의 무리들과 대질심문을 하며 그 죄를 묻는다. 실망과 공포가 뒤섞인 이런 상황에서 죽을 각오로 바얀의 사냥길을 가로 막고 나선 이가 바로 이조년이였다. 『고려사』의 열전에 의하면,

8 李仁復, 「益齋李文忠公挽詞」其二, 『東文選』卷21.

9 『高麗史』卷36, 世家 忠惠王 2年(1332) 2월 24일(갑자).

이조년은 비분강개하며 함께 간 문사 이제현에게 원 조정의 처리가 부당함을 밝히는 글을 짓게 하고 자신이 직접 바얀을 만나려고 했다.¹⁰ 그런데 이듬해 2월, 바얀이 실권하고 툽토(脫脫)가 등장하면서 극적으로 충혜왕은 석방되고 복위를 승인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조년이 보여준 모습은 충혜왕은 물론 모두를 놀래키며 “답이 몸보다 큰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게 했다. 이 외에도 이조년이 숙위 시절 소인배와 어울리며 위구르 여자에게 빠지는 등 방탕한 짓을 일삼는 충혜왕을 위해 체 몸을 돌보지 않고 극간을 했다. 이에 충혜왕은 그의 말이 듣기 싫어 답을 넘어 달아났고, 발소리만 들어도 “이조년이 오나보다”라 하며 주위를 물리고 정제할 정도였다.¹¹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한 충혜왕은 복위 후에도 폭정과 음행을 거듭했다. 그를 위해 충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조년은 1341년 12월, “지금 내가 그 장점을 복돋을 수 없고 그 악행만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으니 이는 신하가 임금을 아끼는 도리가 아니다. 차라리 떠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을 남긴 채 낙향하여 다시는 출사하지 않았다.¹² 결국 충혜왕은 1340년 4월, 원 조정의 제2황후로 책봉되어 실권을 장악한 기황후(奇皇后, ?-?)와 그가 보낸 자정원사(資政院使) 환관 고용보(高龍普, ?-1362), 그리고 그의 처남인 신예(辛裔, ?-1355)에 의해 복위 4년 만인 1343년 10월, 원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광둥(廣東) 계양현(揭陽縣)으로 유배를 가던 중 호남성(湖南省) 악양(岳陽)에서 비명횡사하고 말았다. 이인복은 이제현의 죽음 앞에서 지난 날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던

10 『高麗史』 卷109, 列傳22, 「李兆年」.

11 李穡, 「李仁復墓誌銘」.

12 이 시기 들어 충혜왕의 정치세력 탄압, 다양한 收稅와 토목공사, 전방위적인 淫行 등이 극에 달했고 이는 이조년 낙향의 1차 원인이었다. 김광철, 「고려 충혜왕대 측근정치의 운영과 그 성격」, 『국사관논총』 제71집(1996); 이승환, 『고려왕조의 위기, 혹은 세계화시대』(푸른역사, 2015) 참조.

두 사람의 기상을 떠올렸다. 두 분이 저승에서 함께 반갑게 만나고 계시리라는 추측은 그들의 삶을 적절히 평가한 대목이며, 나아가 그들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인복의 부친 이포(李褒, ?~1373)는 “순박하고 돈후한 군자로, 매사에 순서를 좇고 예법을 따르는”¹³ 성품의 소유자였다. 개인적으로는 그리 영달하지는 못했지만,¹⁴ 성균관 대사성 설문우(薛文遇)의 딸과 결혼하여 낳은 6남 1녀가 모두 출세를 했다.¹⁵ 문과와 원 제과에까지 급제한 이인복을 필두로, 비록 음서로 관직에 진출했지만 공민왕 사후 우왕(禡王)을 옹립하는 등 이성계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 국정을 전횡했던 둘째 이인임이 있으며, 다섯째 이인달(李仁達)을 제외하고 셋째 이인미(李仁美), 넷째 이인립(李仁立), 여섯째 이인민(李仁敏)까지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여식 또한 제과에 급제할 정도로 문명을 떨쳤으나 고용보의 처남이 되어 권력을 잡자 갖은 악행을 저질러 유학자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받는 신예에게 시집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묘지명」에 의하면, “선생의 우애의 정은 천성에서 우러나왔고, 여러 아우들도 선생을 섬기기를 매우 공손히 하여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인복이 죽을 때 임종을 지켰던 이가 이인임이었고 보면 일면 그림직도 하다. 하지만 엄격하고 진중한 성격의 이인복은 동생 이인임과 이인민의 성품을 싫어하여, “나라와 집안을 망칠 사람은 필시 두 동생일 것이다.”며 직설적으로

13 李穡, 앞의 글.

14 『高麗史』 卷44, 世家, 恭愍王 22年(1373) 4월 26일조에 의하면, “丁酉 檢校侍中李褒卒.” 또한 『高麗史』 卷43, 公민왕 21年(1372), 3월 23일조에는 “庚午 王手寫星山君李褒眞, 賜其子守侍中仁任.”이라고도 했다. 이는 모두 이포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아들 이인임의 권세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李齊賢이 지은 「李兆年墓誌銘」에 의하면, 密直副使 上護軍을 지냈다고 한다.

15 『星山李氏派譜』와 李齊賢이 지은 「李兆年墓誌銘」에 의하면, 이인복의 형제가 6형제로, 이색이 지은 「李仁復墓誌銘」에는 5형제로 나와 있다.

공박했다는 기록도 공존한다.¹⁶ 비록 어릴 적 우애 넘치던 형제간이었지만 동생의 그릇된 성정을 정확히 꿰뚫고 서로 다른 정치적 노선을 걸으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¹⁷ 결국 이인임은 1387년 1월, 이성계의 도움을 받은 최영에 의해 임견미(林堅味) 등과 함께 숙청당하고 말았다. 동생 이인민¹⁸은 벼슬에서 물러나고 이인복의 손자 이존성까지 함께 숙청되었으니 이인복의 예언도 틀린 바는 아니었던 셈이다.

다음으로 이인복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자. 여러 기록을 통해 필자가 정리한 그의 성품은 ‘강직(剛直)’과 ‘진중(鎭重)’,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16 『高麗史』 卷112, 列傳25, 「李仁復」.

17 형제라고 해서 같은 정치노선과 처세를 택하리라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할 수 있다. 같은 예로 충혜왕에게 충간하던 이조년이 낙향하자, 그의 친척아우인 李延慶이 충혜왕을 찾아가 자기 형을 늙은 미치광이(老狂)라고 하고는 기분이 좋아진 왕으로부터 쌀과 콩 50석과 배 5백 필을 받은 적이 있다(『高麗史』 卷109, 列傳22, 「李兆年」). 또한 1356년 10월, 공민왕이 반원정책의 기치를 걸고 기철 등 기씨일파와 권검, 노책 등을 주살한 뒤 이를 무마하는 내용과 征東行省理問所 등 폐단이 많은 기구를 혁파해줄 것을 요구하는 표문을 지어 원에 보내는 사신으로 이인임을 임명했다. 공민왕의 입장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상황이었기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인복을 뽑았지만 정작 이인복의 숙부인 平章事 李承慶(李天年의子)은 그가 經世濟民의 방법에 대해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음을 들어 간사한 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高麗史』 卷112, 列傳25 「李仁復」). 물론 강경하고 결단력 있는 성격의 이승경(『高麗史』 卷109, 列傳22 「李承慶」 참조)의 눈에는 지나치게 과묵하고 나서지 않는 李仁復이 답답해 보였고, 또 그것이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는 오해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18 李仁敏은 1360년(恭愍王 9) 10월 金得培와 韓方信이 주관한 과거에 鄭夢周 등과 함께 급제하였고, 1383년(우왕 9) 4월에는 동지공거로서 지공거 門下評理 禹玄寶와 함께 과거를 주관하여 金漢老·沈孝生 등을 선발하였다. 비록 형인 李仁任 덕분에 政堂文學·門下評理 등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문과에 급제했고, 1370년 진주목사로 있을 때는 『近思錄』(4책)을 목판으로 복간할 정도로 유학적 자질을 갖추었다. 그래서인지 이색과도 잦은 교유가 있었다(『牧隱詩藁』 卷26, 「訪李密直不遇」其二. “樵翁節義傾今古, 袞袞百川東海歸.”; 『牧隱詩藁』 卷10, 「李密直歸京山府」. “君不見君王彈雀在東岡, 文烈進諫披心腸, 落日孤煙迷岳陽. 又不見樵隱先生臥病日, 罕有中官來問疾, 文墨功勞誰第一. 先生高義動群臣, 或去不去俱稱仁.”).

있다. 그의 강직함은 절개와 공명정대함으로, 진중함은 근후(勤厚)한 행동과 간중(簡重)한 언어로 표현된다. 그는 굳은 절개를 의의 실천으로 옮겼으며, 남의 작은 선행에도 기뻐하되 적절치 않은 일에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노기를 띠었다. 근후한 행동은 예로써 자신을 지키는 토대가 되었으며,¹⁹ 그의 어눌한 듯 간중할 말은 서연에서 국왕의 모공을 송연하게 만들 정도였다.²⁰ 그는 두 번이나 함께 과거를 주관했던 이색에게 자신의 적은 말수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다. “내 성품이 편벽되고 조급하여 혹시 말을 하다가 실수라도 할까 두려워서 항상 인(認)으로 몸가짐을 삼았었네.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 이것은 아직도 나의 수양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네.”²¹ 그의 말대로라면 이인복은 자신의 급한 성정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타고난 기질을 바꾸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학문적 정밀함과 돈독한 몸가짐을 갖추어야 할까. 그의 철저한 자기절제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이런 성품은 문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좋은 문장에 대해 “정밀히 연구하고 널리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바탕 위에서 고심을 다해 문장을 가다듬을 때야 “그 말과 뜻이 엄중하고도 심오하여 일세에 우뚝할 수 있다”고 했다.²²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의 문장은 “말이 엄밀하고 뜻이 바르며, 사물을 서술하고 읊음에 풍자하는 말이 많았다”²³는 평가를 받았다.

19 白文實, 『淡庵逸集』附錄 卷2, 「同門錄」, “正大謹厚, 以禮自守.”

20 李裕元, 『林下筆記』卷12, 「文獻指掌編」, 「書筵官分四番」, “提學李仁復, 辭氣簡重, 每進講, 王謂左右曰, 吾見李公, 不覺竦然.”

21 李穡, 앞의 글.

22 李穡, 앞의 글.

23 安鼎福, 『東史綱目』卷15下, 甲寅年 恭愍王 23년. “文章非精妍博攻, 無以致其極. 故其文章辭嚴義正, 敘事賦物, 語多諷.”

그래서인지 그의 문장은 일반 시문보다는 사서(史書)의 집필에 더 적합해 보였다. 실제 그는 민지(閔漬, 1248-1326)의 『편년강목(編年綱目)』과 충렬·충선·충숙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수찬(修撰)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원 간섭기에 진행된 몇 안 되는 사서 간행작업으로 이세현, 이곡, 안축 등 당대 대표 문사들이 이어서 참여했던 것이기도 하다.

상(태종)이 이르기를, “재주에는 각각 遲速이 있기 때문에 그 더디고 빠름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대체로 製述을 잘하는 자는 반드시 더딘 점이 있다. 예전에 興安君 李仁復이 빨리 짓지 못하여 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좌우에 經書를 늘어놓고 무척 고민하면서 제술을 하였지만, 일단 제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훌륭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白日場이란 인재를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²⁴

말이 적은 반면 신중하고 간결하니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의 글 역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태종은 백일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인복을 예로 들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을 지어야 하는 백일장의 특성상 거기에 맞지 않는 글쓰기 습관을 가진 인재는 놓치고 마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사실 과거시험이란 정해진 시간 내에 최고의 답안을 써내는 자를 뽑는 방식이다. 물론 이인복은 국자감시, 예부시, 정동행성향시, 회시 등 당대에 볼 수 있는 모든 과거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인재였다. 그런 그가 고심에 고심을 더해 지은 글이니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 짓는 속도가 느린 것으로 유명했던, 그리고

24 卞季良, 『春亭續集』 卷3, 附錄「太宗實錄 17年 閏5月 9日 甲子」. “才各有遲速, 而隨其遲速, 有善有惡. 大抵善述者必遲. 昔興安君李仁復不能急作, 如有述作, 左右布列經書, 而述之甚苦, 既述必善. 以此推之, 白日場無乃失人乎.”

일단 글을 완성하고 보면 더욱 유명해진 것이 바로 이인복의 문장이었다. 그러기에 문장으로나 사상으로나 14세기 후반 고려의 지성계를 이끌었던 이색은 이인복과 그의 문장에 대해 “초은 선생은 도덕이 의당 높았거니와, 문장의 성가는 중원을 진동시켰다네.”²⁵ “말수가 과묵함은 초수(樵叟)를 본받고, 전문이 많음은 역옹(櫟翁)을 숭앙하노라. 문장이나 정사에 있어, 중국과 으뜸을 진정 겨룰 만하네.”²⁶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Ⅲ. 이인복의 정치 인생

이인복의 정치 인생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1342년(충혜왕 복위3) 원나라 회시에 최종 급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352년(공민왕 1) 10월 발생한 조일신(趙日新, ?-1352)의 난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이인복의 정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이인복의 고려에서의 과거급제 이력을 살펴보면, 18세 되던 1326년(충숙왕 13) 국자감시와 예부시에 연거푸 합격한다. 국자감시는 안향의 문인이자 제과 급제로도 유명했던 판서 신천(辛葦, ?-1339)²⁷이 주관하였는데, 이달충(李達衷, ?-1385)과 함께 합격하였다. 몇 달 뒤 권준(權準, 1280-

25 李穡, 『牧隱詩藁』 卷8, 「聞李大卿拜承宣, 走筆奉賀」. “樵隱先生道德尊, 文章聲價動中原.”

26 李穡, 『牧隱詩藁』 卷17, 「雜錄 七首」其六. “寡語師樵叟, 多聞祖櫟翁. 文章與政事, 中國可爭雄.” 이밖에도 李穡은 『牧隱詩藁』 卷31, 「乙巳己酉辛亥三科諸生, 謂僕爲座主……」에서 益齋와 樵隱을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꼽았다. “玄陵一代文章宗, 益齋樵隱眞英雄. 在於穡也狗尾耳, 續貂亦自稱宗工.”

27 辛葦의 제과 급제는 『增補文獻備考』 第185卷, 選舉考2, 과거제도[科制]2에 언급되어 있다.

1352, 지공거)과 박원(朴瑗, 동지공거)이 주관한 예부시에도 연이어 합격하였다. 이때 동년으로는 최원우(崔元遇, 을과장원)·정포(鄭誦, 을과2위)·이정(李挺, 을과3위)·김대경(金臺卿, 병과1위)·이달충(병과3위) 등이 있는데, 이 인복은 병과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예부시 급제 후 이듬해 그가 받은 관직은 복주사록(福州司錄, 정8품)이었다. 이후 전의직장(典醫直長, 종7품) 등을 전직하다 그의 식견을 높이 산 사관(史官)들의 추천으로 1338년 예문수찬(藝文修撰, 정7품)에 임명되면서 사관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33세가 되던 1341년까지 춘추공봉(春秋供奉)·침의주서(僉議注書, 종7)·승봉랑(承奉郎) 감찰규정(監察糾正, 종6)·좌정언(左正言, 정6)·통직랑(通直郎, 정5) 전의시승(典儀寺丞) 지제조(知製教)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조부 이조년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그가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갔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1341년 가을, 그는 정동행성 향사에서 2위의 성적으로 합격을 한다. 향시는 대도에서 보는 회시의 응시자를 선발하는 예비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²⁸ 결국 이인복은 1342년(충혜왕 복3) 원나라 임오과(壬午科)에 합격하게 되고, 장사랑(將仕郎) 대녕로(大寧路) 금주판관(錦州判官)이라는 원나라 관직에 임명된다. 대녕로는 요양행

28 元宗은 延祐 2년(1315)년 과거제도를 부활하면서 그 전 해에 고려에 조서를 내려 제과 참여를 알렸다. 원 제과는 지방관원이 3년에 한 번씩 책임을 지고 주관하였는데, 기본적으로 三場체제였다. 시험 내용과 기준에서 會試, 殿試와 마찬가지로 몽고인·색목인과 한인·남인의 차별이 있었다. 고려의 鄉試(征東行省鄉試)는 11개 행정 중 하나로 기타 총 17개 지역(11개 행정, 2개 宣慰司, 4개 中書省 직할지)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향시 총 합격자는 300명(몽고인·색목인·한인·남인 각 75명)인데, 정동행성에는 한인·남인 정원으로 3명이 배정되었다. 원 과거제도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서는 국내외에 많은 연구 성과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李文勝, 「論元代延祐科舉的意義」, 『北方論叢』(2015年第1期 總第249期); 徐黎麗, 「略論元代科舉考試制度的特點」, 『西北師大學報(社會科學版)』(1998年3月第35卷第2期); 任紅敏, 「元代科舉對元代文壇格局的影響」, 『齊魯學刊』(2017年第2期 總第257期); 秦新林, 「試論元代的科舉考試及其特點」, 『殷都學刊』(2003年02期); 裴淑姬, 「元代科舉制와 高麗進士의 應舉 및 授官」, 『東洋史學研究』 第104輯(2008).

성(治所는 遼陽) 아래 6개 행정구역 중 하나이고, 이인복은 대녕로 아래 9개 속주 중에서도 금주의 관관직(정8품)을 맡게 된 것이다. 최해(崔滄, 1287-1340, 遼陽路蓋州判官)나 안축(安軸, 1287-1348, 遼陽路蓋州判官), 조렴(趙廉, 1290-1343, 瀋陽路知府事) 등 고려인 제과 급제자는 통상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요양행성 하부 속주의 말단 관리로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²⁹

그런데 이 시점에서 비교적 순탄한 고려 관료 생활을 하던 이인복이 굳이 향시부터 새로 시작하는 제과에 응시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원 간섭기 문란했던 고려의 인사정책을 피해 곧장 원 조정에서 승부를 보고자 한 이곡(李穀, 1298-1351)의 예에서 보듯 제과 응시는 또 다른 인생전환의 기회였다. 그러기에 이 무렵 중앙정계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던 향리층 집안의 자제들이 가문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인복의 경우는 이미 조부 이조년의 활약과 이인복 형제들의 무더기 문과 급제로 신흥명문가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라 이곡의 경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것은 이조년의 낙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조년은 충혜왕의 황음무도함을 갖은 방법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한계에 이름을 알고 낙향을 선택했다. 그 시기가 바로 이인복의 제과 응시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특히 이조년은 가문의 명운을 이인복에게 걸 정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낙향할 때가 왔고, 충혜왕의 성정상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환란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인복에게 고려 정계에서 출세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제과 합격증을 따서 잠시 불안한 고려를 떠나 있을 것을 권했을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것은 충혜왕은 이조년이 자신을

29 배숙희(2008), 위의 논문 149-150쪽.

욕보였다고 불쾌해하면서도 낙향한 그와 그의 가문을 벌하지는 않았을뿐더러 이미 원의 관직을 받은 이인복을 상례와는 다르게 우헌납(右獻納, 정5품)으로 승진시키고 고려의 관직을 유지토록 해주었다. 덕분에 이인복은 이듬해 귀국하여 기거랑(起居郎, 종5품), 기거주(起居注, 종5품)로 승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했던 처분이었지만, 제과 응시는 만에 하나라도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한 대책이었던 셈이다.

제과 급제와 원나라 관직 경력은 1344년 충목왕 즉위 이후 이인복에게 본격적인 날개를 달아주기 시작했다. 당시 7세에 불과한 충목왕을 고려왕으로 임명 한 기항후는 충혜왕의 폭정과 음행으로 파탄이 난 고려에 대한 새로운 국정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종유(韓宗愈)·이제현(李齊賢)·김륜(金倫)·박충좌(朴忠佐)·왕후(王后)·김영후(金永煦) 등을 중심으로 국정을 주도하게 하고, 국왕에 대한 대규모 서연관을 조직하는 등 개혁정책을 펼쳤다. 충목왕은 “이인복이 원나라 과거에 급제한 것이 이미 3년이 되었는데 그를 발탁하지 않는다면 문학을 숭상하는 나의 본뜻과는 다른 것이다.”³⁰라고 하며 그를 전리총랑(典理總郎, 정4품), 사복정(司僕正, 종3품),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4품) 등 세 관직에 연이어 앉히고 지제교(知製敎) 춘추관(春秋館) 편수관(編修官)을 겸하게 했다. 이후에도 “내가 이인복을 대접한 것이 아직도 다하지 못하였다.”(1345년 1월), “이인복을 지금부터는 크게 써야 하겠다.”(1346년 10월) 등 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중용하여 관직이 삼사좌사(三司左使, 정2품)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볼 때 이인복의 제과 응거는 승부수가 정확히 통한 신의 한수였다 하겠다.

한편 이인복이 공민왕대에 충신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는 조일신(趙日

30 李穡, 앞의 문장.

新)의 난이었다. 1351년 10월, 원에서 숙위 중이던 왕기(王祺, 공민왕)는 고려의 왕위 계승을 통보 받는다. 이에 공민왕은 환국 전까지 당시 64세 원로이던 이세현을 임시 수상 겸 국왕 대리인 섭정승(攝政丞) 권단정동성사(權斷征東省事)에 임명하여 국정을 맡긴다. 당시 이세현은 만권당(萬卷堂)에서 충선왕의 충애를 받다가 1320년 충선왕이 티베트로 유배를 당한 뒤로 계속 고려 정치계에서 소외된 상태였다. 충혜왕과 충목왕 때 잠시 관직을 맡아 개혁을 주장한 적도 있지만 결국은 부원배(附元輩)에 밀려났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당시 고려정계는 여전히 기황후 인척을 비롯한 부원배 세력이 건재했고, 여기다 숙위 과정에서 형성된 공민왕 측근 호종 세력이 이에 도전을 하는 상태였다. 특히 공민왕 측근 세력 중 조일신은 11월 인사안인 비목(批目)을 가지고 먼저 귀국할 정도로 최측근이었다.

조일신은 충렬왕 때 외교관 조인규(趙仁規, 1237-1308)의 친손자다. 조인규는 원 간섭기 중 가장 입지전적 인물로 꼽히는데, 평민 이하 신분에서 평양조씨를 대표 귀족 가문으로 승격시켰다. 조일신은 조인규의 5자 조위(趙璋)의 아들로, 심왕옹립책동에 참여하여 주홍글씨를 새긴 채 은인자중하고 있었다. 마침 1341년 3월, 왕기(王祺)가 숙위를 위해 입원(入元)하자 숙위단에 합류하였고, 이후 두 번의 실패를 맛보며 10년을 왕기를 위해 충성을 바쳤다. 결국 그의 도박은 성공을 하였고, 공민왕의 즉위와 함께 참리(參理)·찬성사(贊成事)에 임명되었고, 연저수종공신일등상(燕邸隨從功臣一等上)에 책록되었으며, 판삼사사로 승진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민왕이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폐지한 정방의 복구를 요구하고, 이세현을 시기하여 모함하는가 하면, 친원파의 핵심인 기씨와도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부당한 행위를 자행했다. 1352년 9월 29일 밤, 위기를 느낀 조일신은 기씨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천기(鄭天起)·최화상(崔和尚)·장승량(張升亮)·고충절(高忠節) 등과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기씨

일가 대부분을 놓치고 기현(奇顯)만을 제거한 뒤 다음 날 아침, 조일신은 공민왕을 위협해 자신이 우정승을, 정천기에게 좌정승을 맡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10월 1일, 조일신은 자신이 도모한 반란죄를 면하기 위해 별궁을 지키고 있던 최화상을 직접 죽인 뒤, 공민왕을 부추겨 나머지 변란 주모자들을 제거했다. 10월 2일, 공민왕과 조일신은 타협의 방향을 찾는가 했지만, 다음 날 공민왕이 단양대군(丹陽大君, 瀋王 王暉의 친형인 王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인복과 독대한 뒤 상황은 급변했다. 갈등하던 공민왕이 이인복에게 처리를 묻자 그는 원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즉각적 처결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왕은 조일신의 제거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³¹ 결국 10월 5일, 원 제국의 주고려 대사관 역할을 했던 정동행성으로 조일신을 부른 뒤 김첨수(金添壽) 등을 시켜 조일신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1주일 간의 반란은 정리가 되었다.³² 이로써 공민왕의 충애를 얻게 된 이인복은 정당문학(종2) 겸 감찰대부(정3)로 임명되고 성산군(星山君)으로 봉해졌다. 이후 몇 가지 관직을 거치기는 했지만 이인복은 성품상 감찰대부에 적격이었던 모양이다. 1355년에는 정동행성 원외랑에 임명되었지만 특이하게도 기존에 맡고 있던 감찰대부직을 겸직하게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후 이인복의 공민왕에 대한 충은 계속되었고, 공민왕은 중요한 사건마다 그를 중용하였다. 1356년(공민왕 5) 5월 18일, 공민왕은 연회를 명목으로 고위 관료를 모두 입궐시킨 뒤 기철(奇徹, ?-1356)과 권렴(權謙), 노책(盧頌)을 주살했다. 이른바 기씨일파 제거 사건인데, 이를 시작으로 공민왕은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 배제, 왕권의 집중, 과감한 정치개혁 등 몇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시행해 나갔다. 공민왕의 정동행성이문소(征東行省理問所)의 혁파,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 수복, 원 지정(至正) 연호 사용 정지, 고려의

31 李穡, 앞의 글.

32 『高麗史』 卷131, 列傳 卷44, 「趙日新」.

전통관제 회복 등 본격적인 반원정책은 장사성이 항주를 함락하는 등 한족 반란군의 심상치 않은 기세로 인해 쇠락해가는 원 제국의 허점을 노린 것이기도 했다.³³ 결국 10월, 위기를 느낀 원 조정은 살적한(撒迪罕) 등을 다시 보내 고려가 뉘우치니 관용을 베풀어 용서한다는 회신을 보내온다. 이에 공민왕은 이인복을 사신으로 보내 기철 처단을 미리 보고하지 못한 걸 사과한 뒤, 정동행중서성이문소와 만호부(萬戶府)·진무사(鎭撫司) 등은 폐단이 너무 많으니 혁파해 줄 것을 간청하고, 대도에 머물며 와언(訖言)을 일삼는 덕흥군(德興君, 충선왕 아들)의 송환도 요구한다.³⁴ 이에 원 조정은 압록강 서쪽과 영흥 이북 땅을 확실히 반환해줌으로써 고려의 입장에서는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또한 1364년(공민왕 13) 1월 1일, 원 조정은 공민왕을 폐위시키기 위해 최유(崔濡)에게 1만 명의 원군(元軍)을 파견한다.³⁵ 1363년 7월말, 사신 이가노(李家奴)가 공민왕의 폐위를 내용으로 하는 황제의 조서를 전달했지만 고려 조정이 이에 반발한 것에 대한 군사적 행동이었다. 하지만 찬성사 최영과 이성계의 정기(精騎)가 합류한 고려군이 수주(隋州)의 달천(隄川)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이를 막아냈다. 게다가 4월, 부친인 답실팔도노(答失八都魯)의 뒤를 이어 대동(大同) 지역의 군벌이 된 하남행성평장장사 보루테무르(孛羅帖木兒)³⁶가 기황후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등에 업고 군사를 일으켜

33 金成俊, 「고려 말의 정국과 원·명관계」, 『한국사』 20(1994), 329쪽.

34 당시 고려와 원의 정치적 상황에서 입원 사행은 국가와 개인의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논란 끝에 결국 이인복을 파견하게 된다. 즉, 공민왕이 추진한 전격적인 개혁조치에 대해 원에게 해명하고 타협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그에게 맡긴 것이다. 정동훈, 「고려 공민왕대 대중국 사신 인선의 특징」, 『동국사학』 제60권(2016), 136쪽.

35 『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年(1364) 1月 1日; 『高麗史』 卷112, 列傳 卷第25, 〈李公遂〉.

36 清人 汪輝祖의 통계에 따르면, 『元史』에는 총 16명의 孛羅帖木兒가 등장한다. 『三史同名錄』(上海: 商務印書館, 1936), 265-266쪽. 그들의 정치적 신분은 扎魯花赤, 中書右丞, 副都萬戶, 駙馬諸王, 宦者, 駙馬國丈, 宗室魏王, 中書參議, 達魯花赤, 江浙左丞, 江西右

대도를 점령함으로써 기황후가 실각했다가 가까스로 권력을 회복하는 등 정국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이런 와중에 원나라는 더 이상 고려와 불화를 빚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침내 원 혜종은 어사(御使)의 의견을 받아들여 타스 테무르[塔思帖木兒: 德興君]를 폐하고 10월, 고려에 사신으로 한림학사 기전용(奇田龍)을 보내서 공민왕의 복위를 승인하는 공민왕복위조서를 보내었다. 복위 조서를 받은 지 10일 만에 공민왕은 이인복을 원에 파견하여 감사의 표문을 전달하게 하였다.³⁷ 자신의 왕위를 무력으로 지켜낸 공민왕은 당시 원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보루 테무르와의 연대를 갈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도에서 이공수(李公壽)가 남아 원 조정의 상황들을 전해주고 있었지만, 공민왕은 직접 자신의 충복이며 원의 관직 생활을 경험한 이인복을 보내 보루 테무르와의 연계고리를 모색했으리라 추측된다. 이인복은 보루 테무르를 만난 자리에서 공민왕의 기대대로 예의 간단명료한 언사와 단정엄중한 용모를 보여 그의 주목을 끌었다. 보루 테무르는 그와 만난 뒤 주위에 “앞에 나와서도 두려워하는 바가 없다고 한 말은, 바로 이 사람을

丞, 參知政事, 戶部侍郎, 中書右丞相, 監察御史, 宣慰副使 등 비교적 높았다. 이들 중 고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은 노국공주의 아버지인 魏王 李羅帖木兒와 하남 지역 군벌이었던 李羅帖木兒가 있는데, 둘은 별개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牟復禮·崔瑞德 譯, 『캠브리지 中國明代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상권 21쪽과 이승환, 『몽골제국의 쇠퇴와 공민왕 시대』(푸른역사, 2019), 353-363쪽에서는 본고에서 언급된 보루테무르를 공민왕의 장인으로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원사』에는 ‘帖木兒’는 124명이, ‘不花’는 80명이, ‘脫脫’은 15명이나 보인다. 이렇게 元代에 중복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째, 몽원 史書에서 몽고인과 색목인을 지칭할 때 성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몽고인과 색목인은 동물이나 금속, 부족명으로 이름을 삼는 경우가 많았다. 패라 침목아의 경우에도 패라(Bolod)는 鋼鐵을, 침목아(Tāmur)는 쇠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듯 몽고의 이름 속에는 尙武정신이 투사되어 있다. 萬德敬, 『『劍橋中國明代史』中的一處人名訛誤-輯考』『元史』之外同名異人的李羅帖木兒, 『運城學院學報』總第37卷(2019), 31-32쪽.

37 『高麗史』卷40, 世家, 恭愍王 13年(1364) 10月 21日.

두고 하는 말이다.³⁸라고 칭찬했다. 이후 공민왕의 친거로 이인복은 봉의대부(정5품) 정동행성좌우사낭중에 임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이인복도 신돈(辛旽)의 집정기(1365년 5월-1371년 7월)에는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신돈의 등장과 함께 파직을 반복하였고,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는 등 정계 중앙에서는 비켜나 남은 정치 활동을 마무리했다.

IV. 이인복의 인적 네트워크

솔직히 현존하는 자료만으로 이인복의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렵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있는 대로라도 인적 관계망을 연결할 수 있다면 고려 후기 전체 지식인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현존하는 이인복의 시문에는 성명 확인이 안 되는 2명(鄭某·三韓國夫人)과 원나라 문사 5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인복에게 시문을 지어준 사람 4명(李穀·安軸·李穡·李崇仁), 그리고 시문과는 무관하게 사서에 전해지는 1명(拜住³⁹)을 추가하면 총 26명이 현재 확인 가능한 그의 인적 네트워크 범위이다. 이를 토대로 정리한 이인복의 인적 네트워크는 아래 표와 같다.

38 李穡, 앞의 문장.

39 拜住는 문학 작품을 등장하는 인적 네트워크에는 들 수 없지만, 이인복의 제과 동년이라는 점과 난을 피해 고려에 귀화한 원나라 문인이라는 점에서 추가했다.

표-이인복의 인적 네트워크⁴⁰

	인명	자,호,시호	가문/ 貫鄉	문과	傳記 자료	최고 관직	문집(작품)	李仁復 作 시문 / 贈이인복 시문
1	李齊賢 (1287-1367)	호 益齋 자 仲思 시호 文忠	경주이씨	1301년 (辛丑榜)	『史』 112	門下侍 中(중1)	『益齋集』 ○	「益齋李文忠公挽詞」 三首, 『東』 21
2	李崱(李君佺) (1297-1364)	호 杏村 자 古雲 시호 文貞	고성이씨	1313년 (癸丑榜)	『史』 115	守門下 侍中 (중1)	『東』 시2수	「杏村李侍中崱挽章」, 『東』 10
3	朴宜中(朴實) (1337-1403)	자 子虛 호 貞齋 시호 文敬	밀양박씨	1362년 (壬寅榜)	『史』 112	密直提 學(정3)	『貞齋逸稿』 ○	「送朴部令宜中觀母 金堤」, 『東』 10
4	柳淑 (1316-1368)	자 純夫 호 思庵 시호 文僖	서산유씨	1340년 (庚辰榜)	『史』 112	贊成事 (정2)	『東』 15 제17수	「思庵柳政堂淑挽章」, 『東』 10; 「送柳思庵」 『東』 15
5	柳濯 (1311-1371)	자 春卿 자호 誠齋 시호 忠靖	고흥유씨	-	-	守門下 侍中 (중1)	『海東樂府』, 「長生浦」	「誠齋詩上柳侍中濯」, 『東』 4
6	閔思平 (1295-1359)	자 坦夫 호 及菴 시호 文溫	여흥민씨	1315년 (乙卯榜)	『史』 108	大提學 (정2) 贊成事 (정2)	『及菴集』 ○	「及菴詩集跋」, 『及菴詩集』
7	韓宗愈 (1287-1354)	자 師古 호 復齋 시호 文節	한양한씨	1305년 (乙巳榜)	『史』 110	左政丞 (정1)	『東』 3수	「漢陽府院君韓公墓 誌銘」, 『東』 125
8	王煦 (1296-1349)	본명 權載 몽고명 脫 歡 시호 正獻	안동권씨	-	『史』 110	右政丞 (정1)	-	「鷄林府院大君贈諡 正獻王公墓誌銘」, 『東』 125
9	韓哲沖 (1321-?)	자 弘道 호 夢溪	평산한씨	1353년 (癸巳榜)	-	禮儀判 書(정3)	『신증』 1수	「送楊廣按廉韓掌令 哲沖」, 『東』 11
10	李居仁 (?-1402)	자 壽父 호 蘭坡 시호 恭節	청주이씨	-	-	判開城 府事 (중2)	-	「題蘭坡李御史壽父 卷」, 『東』 4

40 『史』는 『高麗史』의, 『東』은 『東文選』의 약호다. 그리고 문과 합격 연도는 고려인의 경우 禮部試를, 원인의 경우 制科를 말한다.

11	郭儀	-	현풍곽씨	-	-	朔方江陵道按察使(종2)	-	「送門生郭正言儀出按江陵」, 『東』 10
12	鄭暉 (1317-1381)	시호 文忠	경주정씨	-	-	門下評理(종2)	-	「鄭相國暉蒲萄軒次韻」, 『東』11
13	李彦冲(夫人) (1273-1338)	자 立之 호 芸齋 시호 文義	전의이씨	1294년 (甲午榜)	-	知春秋館事(종2)	-	「芸齋李政堂彦冲夫人挽章」, 『東』 10
14	鄭某	-	-	-	-	-	-	「送慶尙鄭按廉」, 『東』 21
15	三韓國夫人	-	-	-	-	-	-	「遼陽縣君三韓國夫人挽章」, 『東』 10
16	龜谷覺雲	법호 龜谷	-	-	-	大禪師	-	「題書溪龜谷覺雲禪師御書畫詩卷」, 『東』 15
17	李穀 (1298-1351)	자 中父 호 稼亭 시호 文孝	한산이씨	1320년 (庚申榜)	『史』 109	政堂文學(종2)	『稼亭集』 ○	「順菴新置大藏 李克禮州判作詩以讚 次其韻」, 『稼亭集』 卷14; 「寄克禮州判」(卷16); 「寄克禮州判」(卷17); 「聞克禮州判除代言 詩以賀之」(卷18); 「寄李樵隱」(卷19); 「題金孟堅詩卷」(卷19)
18	安軸 (1287-1348)	자 當之 호 謹齋 시호 文貞	순흥안씨	1307년 (丁未榜)	『史』 109	贊成事(정2)	『謹齋集』 ○	「李起居注 仁復 榮親席上作 五首 并引」, 『謹齋集』 卷2 補遺
19	李穡 (1328-1396)	자 穎叔 호 牧隱 시호 文靖	한산이씨	1353년 (癸巳榜)	『史』 115	侍中(종1)	『牧隱集』 ○	「樵隱先生李公墓誌銘」, 『東』 126; 「聖居山文殊寺記」, 『목은문고』 4; 「祭樵隱先生文」, 『문고』 13; 「乙巳己酉辛亥三科諸生 謂僕爲座主……」, 『牧隱詩藁』 31; 「雜錄 七首」, 『시고』

								17; 「早興」, 『시고』 17; 「巖房清齋如一夢, 慨然哦成三絕句」, 『시고』 15
20	李崇仁 (1347-1392)	자 子安 호 陶隱	성산이씨	1362년 (壬寅榜)	『史』 115	知密直 司事 (종2)	-	「興安府院君李文忠公挽詞」, 『陶隱集』 卷2
21	俟斯 (色目人)	자 公文	應天府 溧陽縣	-	『明史』 320	禮部尚 書	-	「送俟符寶還大明」, 『東』 10
22	馬彥翬 (色目人)	-	金陵	1342년 (壬午科)	『明史』 134	翰林承 旨	-	「寄元朝同年馬彥翬承旨兼東傳子通學士」, 『東』 15
23	傅亨 (漢人)	자 子通	大都	1342년 (壬午科)	『金華黃 先生文集』 38	太常博 士	-	「寄元朝同年馬彥翬承旨兼東傳子通學士」, 『東』 15
24	郭永錫 (漢人)	자 九疇	永嘉	-	『浙江通 志』 129	中書檢 校	『신증』 1수	「送河南郭檢校永錫九疇」, 『東』 10; 「贈郭檢校」, 『東』 15
25	劉傑 (?-1390) (漢人)	자 良甫	撫州路 金溪縣	1342년 (壬午科)	『明一統 志』 54	集賢學 士	-	「送河南郭檢校永錫九疇」, 『東』 10
26	拜住 (蒙古人)	자 明善	大都	1342년 (壬午科)	『史』112 『元史』 列傳 23	樞密副 使	-	『東閣雜記』上 「本朝璿源寶錄」; 『東史綱目』 제15하, 공민왕 19년

1. 정치 선배에 대한 존경과 예의

과편적이거나 존재하는 이인복의 시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만장(挽章)과 묘지명이다. 분량으로도 총 23제 중 7제니 전체의 30%에 달한다. 두 장르가 시와 산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는 성격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집필 관행상 생전의 대상과 막역한 관계

이거나 개인적 인연이 있어야만 창작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인복이 남긴 만장과 묘지명은 이인복의 인간관계를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이인복은 이제현(1제 3수)·이암(李岬)·이언충(李彦沖)의 부인·요양현(遼陽縣) 삼한국부인(三韓國夫人)·유숙(柳淑)의 만장을, 한중유와 왕후의 묘지명을 남겼다.

이인복이 이제현의 만장을 짓게 된 배경은 앞선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인복은 만사를 통해 이제현의 문장이 어떻게 빛났던가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그가 충선왕 대를 시작으로 여러 왕들을 섬겼지만 “몸이 물러나고 나이 많을수록 도가 더욱 빛났던(身退年高道更光)” 이유는 그의 문장이 가진 힘 때문이라는 것이 이인복의 생각이다. 그의 문장은 쇠퇴해가는 세상에서 “혼자 큰 솜씨로 버티었고(公將大手獨持危)” 묵은 습관을 없애고 새로운 문풍으로 일신하도록 이끌었기에 “동방의 한퇴지”⁴¹라고 극찬했다. 한편 이암은 충혜왕대의 폐행(嬖幸)이자 충목왕과 충정왕대에 주로 활약했던 문신으로, 정방(政房)의 제조(提調)로 오랫동안 인사권을 맡았으며, 충정왕 때에는 좌승상에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 남겨진 시문을 보면 그는 정치보다는 학술이나 예술적 방면에 더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다. 그는 당대의 명필로 이름나 있었으며 특히 예서를 잘 쓴다는 평가를 받았다.⁴² 집안 살림살이보다는 평소 독서를 낙으로 삼았었다.⁴³ 이곡은 그가 은거하여 분향 사경하며 지내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를 보냈으며,⁴⁴ 민사평은 그의 서실에 편 매화를 읊기도 했다.⁴⁵ 또한 이암은 묵죽으로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이색은 그의 묵죽에 대해 풍죽(風竹)과 노죽(露竹)으로 나뉘

41 李仁復, 「益齋李文忠公挽詞」, 『東文選』 卷21.

42 韓致瀛, 『海東繹史』 卷68, 人物考2, 「高麗」.

43 『高麗史』 卷111, 列傳24, 「李岬」.

44 李穀, 앞의 문집 卷18, 「寄李杏村」.

45 閔思平, 『及菴詩集』 卷3, 「杏村書室梅花」.

그 맑고 곧은 경지를 극찬했다.⁴⁶ 이러한 점은 이인복이 지은 이암의 만장에서도 확인된다. 이인복은 “황각의 풍성 멀어지되, 난정의 목적만이 남았구나(黃閣風聲遠, 蘭亭墨跡遺).”라고 하여 조정에서의 활약은 시간과 함께 사라질지라도 그의 예술은 왕희지(王徽之)의 난정첩(蘭亭帖)과 같이 길이 남으리라 칭송했다. 그리고 이언충(1273-1338) 부인에 대한 만장은 당연히 남편 이언충과 그의 후손에 대한 존경과 인연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다. 정확히 그 부인이 누구인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⁴⁷ “그 옛적 내가 당에 올라 뵈은 일 있거니, 눈물이 문득 가슴을 적시네(升堂記曠昔, 有淚忽霑胸).”라는 만장의 내용으로 보아 이언충의 아들들(光起·光翊·俟傑·上元·三寶) 중 한 사람이 이인복과 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만장의 주인공인 요양현 삼한국부인은 요양행성의 관직을 가진 인물의 부인으로 볼 수 있는데, 만장의 일반적인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황제의 은덕으로 삼한국부인으로 봉해짐을 밝히고, 부덕과 팔순의 장수, 그리고 자애롭고 겸소한 성품을 연이어 칭송한 뒤, 명정을 앞세우고 떠나는 분에 대한 애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 묘지명의 주인공인 한중유와 왕후는 원 간섭기 대표적인 개혁성향의 충신들이다. 한중유는 충숙왕이 대도에 억류되었을 때(1321.4-1325.5)를 전후하여 벌어진 심왕 왕고의 획책과 양위를 이조년과 함께 끝까지 저지했으며, 1339년 8월에 벌어진 조적의 난을 김륜 등과 함께 처리한 뒤 압송된 충혜왕을 위해 시종 충절로 변호하였고, 유주 충목왕이 즉위할 때에는 왕위 교체에 일관된 충성을 보여 원 조정의 의지에 따라 좌정승(중1품)에 기용되었으며, 이후 1352년(공민왕 1) 8월에는 서연관으로

46 李穡, 앞의 문집 卷32, 「題東亭所藏杏村墨竹」.

47 崔濯가 지은 李彥沖의 묘지명에 의하면, “金氏封化平郡, 故僉議評理諱禧之女. 洪氏封江寧郡, 今王京等處巡軍萬戶綏之女, 爲公兩夫人也. 金先而洪繼.”라고 했다. 崔濯, 『拙叢千百』 卷2, 「故政堂文學李公墓誌」.

도 활약하였다. 왕후는 당대의 권문인 안동권씨 권부(權溥)의 아들로 충선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왕후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왕가의 호적에 올려진 독특한 인물이다. 그는 충선왕이 원 조정의 황위계승에 휘말려 티벳으로 귀양을 가게 되자 대신 가겠다고 나서 영종(英宗)을 감동시켰으며, 이후 임조(臨洮, 甘肅省)로 가 충선왕을 만나고, 해배되자 호위하여 연경으로 돌아왔다(1323년 11월). 그리고 1325년 충선왕이 죽자 영구(靈柩)를 모시고 귀국하여 장례와 제사를 다하였으며, 1342년(충혜왕 복3)에는 직접 입원하여 개인적 인맥을 활용하여 충선왕의 시호를 받아오기까지 하였다. 이후 1347년(충목왕 4) 2월에는 좌정승 김영돈과 함께 순제로부터 고려의 정치개혁을 위한 교지를 받들고 돌아와 정치도감의 판사가 되어 양전 사업 등 본격적인 개혁정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그해 6월, 개혁이 기철이 주도한 이문소의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김영돈과 함께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입원을 시도, 이문소에 투옥되기까지 했다. 결국 순제와 기황후, 정치도감과 이문소와의 권력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하게 되었고 11월, 왕후를 영도침의사사에 임명하여 무마하는 것으로 정치도감의 활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왕후는 1348년(충목왕 4) 12월, 충목왕이 11세로 사망하자 기철과 함께 정동행성의 일을 맡아 보면서 이제현을 원에 보내 다음 왕을 청한다. 이듬해 2월, 그와 개혁성향의 유생들이 적극 지지했던 왕기(18세, 공민왕) 대신 왕흔(王昕, 10세, 충정왕)이 낙점되자 노구를 이끌고 성절사로 입원했다가(3월) 귀국길에 요동 창의현(昌義縣)에서 병사하고(7월) 말았다. 기씨 일족으로 대변되는 다양한 부원배와 권세가들, 그리고 왕가의 외척 인척세력들과 거기에 기생해 착취를 일삼는 세력들에 맞서 강한 의지와 타협 없는 자세로 개혁의 총대를 메고 나섰던 왕후의 쓸쓸한 말로였다. 이인복은 한중유의 경우, 그와 정치 인생을 함께 했던 이조년의 손자라는 이유로, 왕후의 경우에는 이제현의 부탁으로 그들의 묘지명을 작성하였다. 이인복

은 이 작품들을 통해 정치 선배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행적이 역사에 길이 남기를 기원했다.

2. 개인적 친분과 동료로서의 교우

이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인복이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한 인물과 교유한 내용이 담겨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선후배 사이의 인간적 교감을 전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곡과 안축, 유숙, 그리고 이색을 들 수 있다. 현존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이인복이 유숙에게만 지어준 시 두 편만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들이 이인복에게 보낸 시를 통해 그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곡과 이인복이 처음 만난 것은 이인복이 제과에 급제한 1342년 3월 이후로 보인다. 당시 이곡은 정동행성 원외랑으로 지내다 입원(入元)한 뒤 2년 2개월 동안 무관(無官)으로 지내고 있었다. 고려에서 온 문사들과 대도를 유람하며 울적함을 달랠 무렵, 1342년 임오과에 급제한 이인복을 만났다. 비록 이인복이 10살이나 어렸지만 이역만리에서의 소중한 지적 인연이었고, 한족(漢族) 일급문사들과 겨뤄 당당히 급제했다는 자부심 또한 그들을 인간적으로 묶어주었다. 그들은 “밤이면 침상에서 마주해 얘기 나누었고, 시장할 적에 밥 먹으며 누차 권할(夜床鏘語 晚食屢加餐)⁴⁸ 정도로 대도에서의 일상을 공유했으며, 이듬해 3월, 조인규의 아들로 당대 불교계의 핵심으로 군림했던 순암의선(順菴義旋)이 대도에서 대장경을 봉안하자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 시를 지어 경하하기도 했다.⁴⁹ 이인복이 대녕로

48 李穀, 앞의 문집 卷16, 「寄克禮州判」.

49 李穀, 위의 문집 卷14, 「順菴新置大藏 李克禮州判作詩以讚 次其韻」.

금주판관으로 근무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때면 이곡은 시를 보내 위로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견제와 이국의 풍습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것인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⁵⁰ 또한 이들의 인연은 이인복이 귀국한 뒤에도 이어졌다. 1345년(충목왕 1) 1월, 이곡은 이인복이 밀직사 우부대언(정3품)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벼슬살이 어찌 꼭 만 리 밖에서 해야 할까? 삼한의 내상이면 죽히 영예가 되고말고(游宦何須萬里行, 三韓內相足爲榮).”⁵¹라고 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⁵²

또한 1324년(충숙왕 11) 제과에 급제한 뒤, 충숙왕과 충혜왕 대에 활동했던 선배 문인 안축도 이인복에게 시를 남겼다. 1년여에 걸친 원에서의 관료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인복은 연이어 기거랑과 기거주에 임명되었다. 출국 전의 직책이던 기거사인이나 기거랑 기거주는 모두 왕의 지근거리에서 사관과 간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책들이다. 당시 원나라 제과 급제는 개인의 넘어 국가의 명예를 높인 쾌거로 칭송되었다. 그러기에 예부시 문과 급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인정과 혜택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안축은 귀국한 이인복과 그의 부모를 위해 베풀어진 영친연(榮親宴)에서 그들을 위한 축시 5수를 지었는데,⁵³ 흐뭇한 마음으로 후배의 밝은 미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선배의 마음을 잘 드러냈다.

유숙은 공민왕 대 충신으로서 이인복과는 정치적 동지를 넘어 깊은

50 李穀, 위의 문집 卷17, 「寄克禮州判」.

51 李穀, 위의 문집 卷18, 「聞克禮州判除代言 詩以賀之」.

52 이 외에도 李穀은 충목왕 4년(1348) 봄에는 「寄李樵隱」(『稼亭集』 卷19)를 보내 고려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불미스럽게 중단된 뒤 이역에서 느꼈을 절망감과 고독을 李仁復에게 토로하기도 했으며, 이후 완전 귀국해서는 愚谷 鄭子厚의 제자인 金孟堅이 시집을 묶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가해 李仁復과 함께 시를 짓기도 했다(『題金孟堅詩卷』, 『稼亭集』 卷19).

53 安軸, 『謹齋集』 卷2, 補遺, 「李起居注 仁復 榮親席上作 五首 并引」. 이 외에도 「白文實按部上謠 八首」(『謹齋集』 卷2, 補遺)의 서문에 의하면 “近者, 起居注李公, 自中朝登第而還, 士夫賦詩贈行, 各占三韓異迹爲題, 語意不類, 眞奇作也.”라는 언급이 있다.

인간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다. 유숙은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사록에 임명되었지만 숙위를 위해 입원하는 왕기(공민왕)를 시학(侍學) 자격으로 호종하여 4년을 모셨다. 조정에서 그의 절개를 높이 사 1344년(충목왕 즉위) 가을 길창부전첨(吉昌府典籤)에 임명하자 귀국하여 개성참군(開城參軍), 춘추수찬 등을 거쳤는데 1347년(충목왕 3) 가을, 삼사도사(宗7)에 임명되자 바로 사직하고 다시 입원하여 왕기를 보필한다.⁵⁴ 이후 공민왕이 즉위하자 예문관직제학 지제교 겸 춘추관편수관 지삼사사에 임명되었고, 군국(軍國)의 기무(機務) 결정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이어간다. 이후 조일신의 난(1352), 기철의 난(1356), 홍건적의 침입(1361), 김용(金鏞)의 홍왕사 변란(1363) 등 굵직한 사건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공민왕의 최측근으로서 활약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인복과 마찬가지로 신돈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유숙은 항상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⁵⁵ 결국 1368년(공민왕 18) 12월 21일, 신돈이 보낸 자객에게 교살 당하고 말았다. 이인복은 신돈의 견제로 자의반타의반으로 낙향하는 그에게 송별시를 주었다. 그는 이 시에서 “공처럼 명철한 분은 청사에 전해지리다(明哲如公史可傳)”고 칭송하며, “위태로운 시국에 사직을 편안히 하고는, 다시 평탄한 곳으로 가서 신선이 되겠구려(已向危時安社稷 更從平地作神仙).”⁵⁶라며 위로했다. 이에 유숙은 “님 향한 내 충성이 쇠해진 게 아니라, 과분한 부귀영화는 오래 누리기 힘든 때문이라(不是忠衰誠意薄, 大名之下久居難).”⁵⁷고 화답했다. 하지만 신돈은 이 시구가 구천(句踐)과 범려(范蠡)의 비유라는 억지 해석을 붙여 그를

54 恭愍王을 호종할 때의 심정은 다음 시에서 잘 엿볼 수 있다. 柳淑, 「從玄陵朝元東還路上」, 『東文選』 卷21. “戀主心馳燕塞雲, 思親夢到胡州月. 平生忠孝兩難忘, 茫然獨立長程雪.”

55 『高麗史』 卷112, 列傳25 「柳淑」과 李穡의 「有元高麗國忠勤節義贊化功臣 重大匡瑞寧君 諡文僖柳公墓誌銘」(『牧隱文藁』 卷18)에 여러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56 李仁復, 「送柳思庵」, 『東文選』 卷15. 이때의 분위기는 李崇仁의 「座主思菴先生乞退南歸以詩奉呈」(『陶隱集』 卷2) “載書甚欲從車後, 旁舍須教著我生.”에서도 잘 살필 수 있다.

57 『高麗史』 卷112, 列傳25, 「柳淑」.

사지로 몰아넣는다.⁵⁸ 그렇게 유숙이 황망하게 죽고 세 해가 지나 신돈이 제거되자 이인복은 그제야 유숙의 만장을 지을 수 있었다. 그는 “비록 물러났어도 화를 못 면했으니, 명성이 높아져 더욱 전해지리라(身退猶難免名高更可傳).”⁵⁹며 훈령을 위로하고 마음 속 울분을 털어냈다.

이색은 선대의 인연도 인연이지만 실제 이인복과 함께 공민왕 대의 문단을 이끌며 인간관계를 맺었고, 그의 묘지명까지 지었다. 이색은 이인복의 제문에서 천자에게 올릴 대책문의 교정을 부탁하러 집에 온 이인복을 15세 때 처음 보았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이제현의 뒤를 이어 나라의 문장으로 활약할 때 옆에서 10년을 모셨지만, 지병 때문에 이제야(1380년 9월 26일) 찾아뵙을 죄송스러워했다.⁶⁰ 이색은 이인복의 인간됨과 문장⁶¹은 물론 동생 이인민⁶², 부인 하씨(河氏)⁶³, 문인 박상진(朴尙眞)⁶⁴ 등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시문을 남길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실제 두 사람은 1365년(공민왕 14) 윤10월, 1369년(공민왕 18) 6월 두 차례나 함께 예부시를 주관하여 각각 윤소종(尹紹宗)·하륜(河崧)·박상진·노숭(盧嵩)·맹희도(孟希道)·조호(趙瑚) 등 28명과 유백유(柳伯濡) 등 33명의 인재를 선발하기도 했다.⁶⁵ 그래서

58 『高麗史切要』 卷28, 恭愍王 17年(1368) 9月; 徐居正, 『東人詩話』; 沈守慶, 『遣閑雜錄』 (『大東野乘』 卷1).

59 李仁復, 「思庵柳政堂淑挽章」, 『東文選』 卷10.

60 李穡, 앞의 문집 卷13 「祭樵隱先生文」.

61 2장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인복의 문장을 평가한 작품은 아래와 같다. 「乙巳己酉辛亥三科諸生, 謂僕爲座主……」(『牧隱詩藁』 卷31); 「雜錄 七首」(『牧隱詩藁』 卷17); 「李密直歸京山府」(『牧隱詩藁』 卷10); 「聞李大卿拜承宣, 走筆奉賀」(『牧隱詩藁』 卷8); 「巖房清齋如一夢, 慨然哦成三絕句」(『牧隱詩藁』 卷15).

62 李穡, 위의 시집 卷10, 「李密直歸京山府」; 『牧隱詩藁』 卷13, 「得李侍中書送野物一首 卽刻奉謝」; 『牧隱詩藁』 卷26, 「訪李密直不遇」.

63 李穡, 위의 문집 卷4, 「聖居山文殊寺記」.

64 李穡, 위의 시집 卷33, 「昨聞朴判書契長卽世 曉作挽詞」.

65 두 사람이 당시 과거를 주관하면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易書제도를 처음으로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李瀾, 『星湖僿說』 卷11, 人事門, 「科場易書」. “後奸

이색은 을사년(1365) 동당시(東堂試)를 함께 주관했던 추억을 “나는 지금 슬픔과 기쁨이 둘 다 끝없어라, 을사년 동당시가 참으로 한바탕 꿈이로다(我今悲喜兩無窮 乙巳東堂一夢空).”⁶⁶라고 되새기기도 했다. 또한 1357년(공민왕 6) 4월, 당시 감수국사이자 정당문학이던 이인복이 지공거로 뽑은 염흥방(廉興邦)의 시에 차운하면서 “흥안의 두 눈은 본디 저울과 같았거니(興安兩眼是權衡)”⁶⁷라고 하며 그의 사람 보는 눈을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이색은 “국법을 고쳐 제 맘대로 대성인을 거스르고, 불순한 자 표창해 제멋대로 간웅을 쓰는(變法甘心違大聖 褒疑信手進奸雄)” 시대상황을 답답해하며, “그 당시 성주의 초은 노인이, 붓을 쥐고도 끝내 공 못 이룬 게 가련하구나(當日碧珍樵隱叟 可憐携筆竟無功)”며 혼란스런 정치 상황에서 뜻을 펴지 못한 이인복을 아쉬워했다.

다음으로는 격려와 당부를 전하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탁(柳濯), 이거인(李居仁), 박의중(朴宜中), 한철충(韓哲沖), 정모(鄭某), 그리고 정치노선이 달랐던 곽의(郭義), 정휘(鄭暉) 등을 들 수 있다. 유탁은 합포(合浦)에서의 무용담으로 위용을 떨친 무신으로,⁶⁸ 역관 유청신(柳淸臣, ?~1329)의 손자다. 유청신은 몽골어 역관 신분으로 최고위직 시중(侍中)의 반열에까지 올랐고, 고려 충렬왕은 물론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1215-1294)의 총애를 받아 청신(淸臣)으로 개명한 인물이다.⁶⁹ 유탁은 홍왕사의 변란 때 병력동원 진압으로 1등공신이 되었고, 이후 좌시중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1368년(공민왕 17) 8월, 노국대장공주의 영전을 마암(馬巖)에 다시 신축하는 일을

偽日滋。至恭愍十四年，李仁復李穡建議，禁學子挾冊易書試卷，以防假濫。此今易書之始也。”

66 李穡, 위의 시집 卷23, 「因有所感」.

67 李穡, 앞의 시집 卷17, 「次廉東亭賀姜代言詩韻」.

68 李裕元, 『林下筆記』 卷38, 『海東樂府』에 1352년(恭愍王 1)에 그가 지은 「長生浦」가 수록되어 있다.

69 『高麗史』 卷125, 列傳38, 「柳淸臣」.

안극인(安克仁)·정사도(鄭思道)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순군옥에 하옥되었고 이후 공민왕의 눈 밖에 나 신돈의 당여(黨與)였다는 억울한 죄목으로 교수형을 당했다.⁷⁰ 이인복은 유탁의 당호인 성재(誠齋)에서의 회합에서 시를 지어 올렸다. 나이는 이인복이 3살이 더 많았지만 당시 유탁은 벼슬이 시중이었고 공민왕의 핵심 측근으로 활약하던 중이었다. 이인복은 성(誠)의 의미를 풀어 그것으로 처신의 기준을 삼아 스스로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화려한 조각과 단청 대신 소박한 창문과 사립문을 갖춘 유탁의 서재를 묘사하며 성을 실천하는 대군자의 풍모라고 칭찬한 뒤, 당나라 방현령(房玄齡)이나 두여회(杜如晦)와 같이 어진 정승으로 역사에 모범이 되리라고 인사로 마무리하였다.⁷¹

또한 이거인은 1388년(창왕 1), 지문하(知門下)로 상만호(上萬戶)에 임명되었고, 임견미 사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다. 무장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높은 안목을 가져 시문에 구하더라도 매우 까다롭게 골라 당대의 문장가들 중에서도 익재(益齋, 이제현), 초은(樵隱), 행촌(杏村, 이암), 목은(牧隱) 정도의 것만을 취하였다고 한다.⁷² 이인복은 그가 지은 시축에 축하시를 한 수 남겼다.⁷³ 그의 호인 난파(蘭坡)를 소재로 난초동산을 가꾸는 그의 정성과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고, 영화(英華)와 화순(和順)을 얻는다면 심성의 덕도 좋아질 것임을 당부하였다. 비록 옛 성현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하나 여전히 난초의 풍도가 남은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정사(政事)에 힘쓰자고 마무리함으로써 조금은 형식적인 느낌을

70 李穡은 「因詠兩侍中」(『牧隱詩藁』 卷16)에서 “一旦鷲翁成鳩毒，洗冤應是挹長江”라고 하며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아쉬워했다.

71 李仁復, 「誠齋詩上柳侍中濯」, 『東文選』 卷4.

72 權近, 「書蘭坡先生詩卷後」, 『東文選』 卷103.

73 이 자리에 李穡도 함께 있었던 모양이다. 이색은 이거인의 이름이 居仁이고, 자가 壽父인 것을 따서 仁과 壽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 李穡, 「書李壽父詩卷後」, 『東文選』 卷102.

주고 있다.

한편 이인복은 성리학에 밝았으며 문장이 우아하기로 유명했던 후배 박의중이 모친을 뵈러 고향에 내려가자 전송시를 지어주었다. 박의중은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을 중용하고 이색을 중심으로 교수진을 개편할 때 교관으로 선발되기도 한 재원이었다. 이후 공양왕의 경연장에서 정몽주·정도전 등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⁷⁴ 이인복은 이 재주 많은 후배에게 “우리도 아직 잃지 않은 건 자네같이 재주 많은 이 때문이지(斯文今未喪 吾子故多才)”라고 격려하며, “애달피라, 나 혼자 무슨 일로 가려다 말고 다시 머뭇거리고(嗟余獨何事 欲去更徘徊).”⁷⁵하며 그 헤어짐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이인복은 중서성 장령(종4품)으로 있던 한철충이 양광도안렴사로 나가게 되자 이를 전송하는 시를 지어주었다. 이인복보다 13세가 어린 한철충은 1353년 5월, 이세현과 홍언박(洪彦博)이 주관한 계사방(癸巳榜)에서 이색과 함께 급제한 인물이었다. 이인복은 “청렴과 재능은 세상에서 어질게 여기네(廉能世所賢)”⁷⁶라며 한철충의 능력을 칭찬하며 유학자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됨을 당부했다. 막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후배에게 시급한 본분은 바로 민생을 살피는 것이었다. 잦은 왜구의 침입과 국가에 봉물을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딱한 사정과 함께 항산(恒産)이 무너진 당시 민생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함을 부탁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유도(儒道)를 잊지 않는 선비의 길임을 당부하며 어서 실적을 쌓아 당상관으로 승진하길 기원하고 축원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이인복의 시 중에는 신돈과 가까운 관계로 그와는 정치적 노선이 분명히 달라 보이는 인물에게 준 것도 보인다. 그 중 꼭의는 현풍사람

74 『高麗史』 卷45, 世家, 恭讓王 2년(1390) 1월 12일.

75 李仁復, 「送朴部令宜中觀母金堤」, 『東文選』 卷10.

76 李仁復, 「送楊廣按廉韓掌令哲冲」, 『東文選』 卷11.

으로, 매년 명절이면 영산(靈山, 경남 창녕)에 있는 신돈의 아버지 묘소에 제사를 지낸 공으로 정언(正言, 정6품)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인복은 신돈을 싫어하여 공민왕에게 그를 멀리할 것을 간언하기도 했다.⁷⁷ 이런 이인복이 궤의 같은 인물과 가까이 지냈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권력자 신돈의 눈에 들어 중앙정계로 들어온 그와 일부러 척을 질 필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을 맺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그다지 깊이 있는 감정의 교류보다는 전별연에서 지어진 형식적인 전송시라 할 수 있다.⁷⁸ 또한 정휘의 경우, 문과출신으로 1356년(공민왕 5) 쌍성총관부 수복작전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하지만 홍주목사로 재직 중이던 1368년 10월, 김정(金精)·김흥조(金興祖) 등이 벌인 신돈 주살 모의를 시중 이춘부(李春富)에게 고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인복은 홍주목사가 내려가 있던 정휘가 포도밭을 일구고 그 사이에 포도헌을 짓고 연회를 베풀자 그 자리에 참석하여 시를 남겼다. 무장으로서의 그의 업적이나 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다 잊고 함께 포도주에 취해보자는 내용의 시다. 이 시의 창작시점이 신돈 주살 모의를 밀고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정휘와의 인적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개인적 친분관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시 창작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문인과의 만남과 인연

이인복의 시문에는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인이 5명이나 등장한다. 이는 그가 당시 중국 관련 행사나 활동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었음을

77 『高麗史』 卷112, 列傳25, 「李仁復」.

78 李仁復, 「送門生郭正言儀出按江陵」, 『東文選』 卷10.

집작케하는 대목이다. 그의 시문에 등장하는 중국 문인의 신분은 사신과 제과 동년(同年)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첫째, 사신으로는 명나라 주원장(朱元璋)이 보낸 설사(隸斯)와 하남왕(河南王) 췌캐 테무르(廟廟帖木兒)가 보낸 곽영석(郭永錫)이 있다. 원 조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낸 것인데, 이는 당시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설사의 경우다.⁷⁹ 응천부(應天府) 율양현(溧陽縣) 사람인 설사는 가정지주(嘉定知州)로서 원래 장사성(張士誠)의 무리에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1366년(순제 26) 초, 주원장군이 송강부(松江府)와 가정주(嘉定州)를 총공격했을 때 투항하였고,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1368년(홍무 1), 병부원외랑에 임명되었다가 부보랑(符寶郎), 상보사승(尙寶司丞)으로 승진했다. 이 해 11월, 고려에 사신으로 발탁되어 뱃길로 출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듬해 4월에야 고려에 도착했다.⁸⁰ 설사가 가져온 고문(誥文)에는 주원장이 일개 평민으로서 어떻게 천하를 평정하게 되었는지, 명 건국과 홍무 연호 사용을 직접 알린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1369년(공민왕 18) 8월, 다시 고려에 파견되어 공민왕을 책봉하는 조서와 금인(金印), 대통력(大統曆)을 전달함으로써 초창기 명과 고려의 국교 수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설사의 이력이다. 그는 1358년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고려에 귀화 정착한 위구르 출신 문사 설손(隸遜, 1318-1360)⁸¹의 사촌동생으로, 그와 함께 고려에 들어와 체류하

79 설사의 가문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난옥, 「공민왕대 후반 여명관계와 장자온·설사」, 『사학연구』 제131호(2018) 185-193쪽, 설씨 가문의 귀화 상황에 대해서는 배숙희, 「13-14세기의 유형과 고려로 이주」, 『역사학보』 제233집(2017), 18-20쪽 참조.

80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8年(1369) 4月 28日. 사실 朱元璋의 사신이 고려에 도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1364년 4월에도 주원장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高麗史』 卷40, 世家, 恭愍王 13年(1364) 4月 21日. 이후 장사성이 吳王이라 할 만큼 강성해지자 사신을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

81 裴圭范, 「원나라 文人 隸遜의 歸化와 現傳 작품」, 『경희어문학』 34집(2014); 朴現圭,

였다. 그는 고려 문인들과 교류하며 명망을 얻었지만, 설손이 사망하고 고려마저 홍건적의 병마에 휩쓸리게 되자 공민왕 9년-12년 사이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 장사성의 휘하로 들어갔고, 결국 중원의 강자로 떠오른 주원장의 명에 투항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다.⁸² 한편 고려에 온 설사는 양 2마리를 잡아 왕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고, 이틀 뒤 공민왕은 그에게 전송연을 베풀어주었다. 그 자리에서 안마(鞍馬)와 의복, 약재들을 선물로 주었지만 설사가 거절하자 문신들에게 전송시를 지어 주도록 했다.⁸³ 이인복도 그 자리에서 그대는 사신으로 올 정도로 세상을 주유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변방 국가에 파묻혀 있어 부끄럽다는 검사의 말과 함께 “불초한 내가 그대에게 말하거니, 노력하여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贈言吾不佞, 努力更流芳).”⁸⁴라고 축원했다.⁸⁵

다음으로 광역성의 경우다. 보루 테무르(孛羅帖木兒)는 여느 제왕들과 마찬가지로 중앙권력을 잡은 기황후와는 적대적 관계였다. 한때 개경을 함락하기도 했던 홍건적은 1363년 봄, 파두반(破頭潘)을 중심으로 세를

「위그로족 귀화인 僕遜문집인 『近思齋逸藁』의 발굴과 분석」, 『大東漢文學』 제7집 (1995) 참조.

- 82 설손이 고려 사신으로 선발된 이유에 대한 기존 시각은 첫째, 그가 元代 江南 海運의 起點인 劉家港에 있던 嘉定땅의 관리(知州)였다는 점(李新峰, 「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明清論叢』 第4輯(2003), 92쪽). 둘째, 실제 고려에 체류하면서 보고들은 고려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력과 인식 때문이라는 점(김난옥(2018), 앞의 논문, 190-191쪽)을 들 수 있다.
- 83 이 자리에서 지어진 작품 중 남아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李穡의 「送僕符實使還朝詩序」(『東文選』 卷87), 李崇仁의 「送僕符實」(『陶隱集』 卷1), 河乙沚의 「送僕符實還朝」(『東文選』 卷21). 특히 이색의 송별시 서문에는 설사가 피난을 와서 고려의 문사들과 좋은 교류를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 84 李仁復, 「送僕符實還大明」, 『東文選』 卷10.
- 85 이인복과 설사는 다양한 인간관계로 얽혀 있었다. 즉, 설사의 조카인 僕長壽는 당시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대명외교에서 활약했는데, 설장수의 科擧 同年으로는 박의중·이승인·정도전 등이 있었다. 이들 중 이승인은 바로 이인복의 사촌동생으로, 이날 송별연에도 참석하여 함께 송별시를 짓기도 했다.

재결집하여 상도(上都)를 침략한다. 이에 원 조정은 보루 테무르를 진압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진압케 하였다. 이 무렵 원 조정은 자정원사 박불화(朴不花)나 선정원사(宣政院使) 토곤(脫歡)이 불법을 저질러 어사대로부터 자주 탄핵을 받았으나 기황후의 비호로 오히려 어사대 관리가 좌천을 당하는 등 정치가 문란한 상태였다. 그러자 그간 기황후와 황태자 아유시라 다라로부터 핍박을 받던 고위 관료들이 도망쳐서 정치적 위상이 제고된 보루 테무르 군진에 합류하였다. 이를 기황후는 모반으로 간주하고 처단에 나섰다. 이때 기황후와 손을 잡은 인물이 바로 하남왕(河南王) 쾌쾌 테무르(廓擴帖木兒)였다. 그는 군벌인 차간 테무르(察罕帖木兒)의 양자로서 그가 죽자 1362년 6월, 총병관과 하남행성 좌승상에 올라 군권을 장악했다. 이후 황하 지역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확실한 군벌로 성장하여 보루 테무르와 황하 유역 섬서성 일대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보루 테무르는 1364년 4월, 역으로 곧장 대도로 진격하여 권력을 손에 넣게 된다.⁸⁶ 이 해 10월, 이인복이 입원하여 원 조정에 공민왕 복위에 대한 감사의 표문을 전하고, 보루 테무르를 직접 만난 일은 앞선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이듬 해 3월, 보루 테무르는 순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황후를 유폐시킨다. 하지만 6월, 기황후는 풀려나 환궁하고 7월, 순제의 밀명을 받은 상도마(上都馬)에 의해 보루 테무르는 살해당하고 만다. 이에 지방으로 도주했던 황태자와 쾌쾌 테무르가 다시 복귀한다. 그러자 대륙에서의 정치적 변동을 주시하던 공민왕은 1366년(공민왕 15) 3월, 김제안(金齊顔)과 전녹생(田祿生)을 원에 파견하였고, 이 중 김제안이 단기(單騎)로 하남까지 달려가 군벌로서 실권을 장악한 하남왕 쾌쾌 테무르를 만나는데 성공한다.⁸⁷ 이에 쾌쾌 테무르는 중서검교

86 이승환(2019), 앞의 책, 356-361쪽.

87 『高麗史』 卷104, 列傳17, 「金齊顔」.

(中書檢校) 광영석을 보빙사(報聘使)로 삼아 김제안의 귀국 편에 함께 보내온다.⁸⁸

고려에 온 광영석은 문묘를 참배하고는 학사(學舍)가 무너진 것을 지적하고,⁸⁹ 하남왕의 명으로 공민왕을 위해 잔치를 열고,⁹⁰ 공민왕이 전별연에서 선물로 준 습의(襲衣)와 금대(金帶) 등을 하나도 받지 않았으며,⁹¹ 귀국길에 평양부 기자묘에 이르러 시를 남기는⁹² 등 고려 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⁹³ 이인복은 다른 문인들과 함께 광영석에게 시를 지어 올리며 그의 사행을 위로하고 축원하였다.⁹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에게 준 다른 한편의 전송시 말미에 “유공부가 내 안부 묻거들랑, 날 위해 잘 살펴주신 점 감사했다 전해주시길(冬官如有問 爲我謝縹緲)”이라 하고는 “劉工部는 나의 同年이다.”는 自註를 붙였다.⁹⁵ 즉, 이인복은 원에서 온 사신 광영석에게 자신의 원 제과 경력과 동년들에 대해 언급하고, 그를 통해 공부(工部)벼슬을 하고 있는 유모(劉某)에게 안부를 전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과연 누구일까?

둘째, 이인복이 남긴 시 중에는 자신의 제과 동년이 여러 명 등장한다.

88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1月 23日; 『高麗史切要』 卷28, 恭愍王 15年(1366) 11月.

89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2月 1日.

90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2月 4日.

91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2月 6日.

92 『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2月 12日. “何事佯狂被髮爲, 欲將殷祚獨扶持. 去之祇爲身長潔, 諫死誰嗟國已危. 魯土一丘松柏在, 忠魂萬古鬼神知. 晚來立馬朝鮮道, 髣髴猶聞麥秀詩.”

93 郭永錫은 奇皇后를 빗대 고려인들이 아들보다 딸 낳는 것을 중히 여긴다고 비꼬기 했으며(『高麗史』 卷111, 列傳24, 「林樸」), 연회에서 주위에 있던 武人들에게 시를 짓자고 하여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다(『高麗史』 卷41, 世家, 恭愍王 15年(1366) 12月 4日).

94 李仁復, 「贈郭檢校」, 『東文選』 卷15. 李崇仁도 「送河南郭九疇使還」(『陶隱集』 卷1)이라는 시를 남기고 있다.

95 李仁復, 「送河南郭檢校永錫九疇」, 『東文選』 卷10.

방금 언급한 유모 외에도 마언휘(馬彦羣)와 부자통(傅子通), 그리고 이와는 다른 경로지만 『고려사』 권112 열전에 입전된 배주(拜住, 고려명 韓復)가 그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인복은 1342년(至正 2) 3월, 임오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다. 이때 합격한 사람은 모두 78명으로 배주(몽고)가 우방장원을, 진조인(陳祖仁)이 좌방장원을 차지했고, 이인복은 한인(漢人) 정원으로 합격했다.⁹⁶ 이인복은 우방의 색목인 마언휘(翰林承旨)와 좌방의 한인 부형(傅亨, 太常博士)에게 보내는 시를 썼다.⁹⁷ 이인복은 이 시에서 한림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사화를 꽃앰던 경험을 추억하며 동년들만의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작별한 뒤에야 옛정 두터움을 깨달았다(別來更覺交情厚)”는 말로 아쉬움과 그리움을 토로했다. 원 조정에서 관료로 활동 중인 동년들을 봉새에 비유하며 자신을 낮추되, 동이(東夷)에는 삼신산이 있으니 그리 가벼이 보진 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⁹⁸ 마언휘는 서역 지방의 세주(世胄) 출신으로 금릉(金陵)에 들어와 살았던 인물이다. 국자생으로, 대도로 향시를 통해 제과에 급제하였다. 강서행성관구(江西行省管勾)·참의·한림승지를 역임했으며, 1371년(洪武 4) 평장사에 임명되기도 했다.⁹⁹ 한편 부형은 자가 자는 자통(子通)으로, 대도사람이다. 그 역시 국자생으로

96 『元史』 卷40, 「順帝三」; 蕭啟慶, 『元代進士輯考』(中研院史語所, 2012), 289-308쪽. 余來明, 『元代科舉與文學』(武漢大學出版社, 2013), 419-427쪽.

97 李仁復, 「寄元朝同年馬彦羣承旨兼柬傅子通學士」, 『東文選』 卷15.

98 沈守慶(1516-1599)의 『遣閑雜錄』에서는 이 시를 소개하며 “金宗直은 『靑丘風雅』에 수록하고 각주를 달기를, ‘이때 원 나라는 亂末의 시기라, 이 글로써 두 사람을 초청하여 동방에서 피난하도록 권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승지(마언휘)와 학사(부자통)는 황제의 近侍로 계급이 높은 벼슬인데, 이인복이 비록 동기생으로 친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감히 이렇게 초청할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당시 僕遜 집안과 韓復의 예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99 丁復, 『檜亭集』 卷8, 「送馬彦羣進士赴江西省管勾 二首」; 楊翹, 『佩玉齋類稿』 卷4, 「送馬彦羣赴江西省管勾詩序」.

서, 왕기(王沂)의 제자였다. 1335년, 향공진사(鄉貢進士)가 되었으나 회시는 보지 않았고, 추천으로 산북염방사서리(山北廉訪司書史)에 임명되었다. 이후 임오과에서 『역경』으로 본과진사가 되었다. 응봉한림문자·태상박사·감찰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¹⁰⁰ 색목인 마언휘와 한인 부형, 그리고 고려인 이인복. 종족은 달랐지만 문한을 중심으로 엮어진 그들의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¹⁰¹

한편 광영석에게 안부를 부탁한 유모(劉某)의 본명은 유결(劉傑), 자는 양보(良甫, 良輔)다. 그는 남인 정원으로 합격했는데, 고향은 역시 강남인 무주로(撫州路) 금계현(金溪縣, 현 강서성 금계)이다. 그는 1335년(至正 원년), 『주역』으로 강서행성 향시에 13등으로 합격했다가, 이후 임오과에서 삼갑진사(三甲進士)가 되어 신건현승(新建縣丞)에 임명되었다. 이후 의양현윤(宜陽縣尹)·중서사인·집현학사·서대감찰어사·영남광서도렴방사첨사·연안로총관(延安路總管)·비서경(祕書卿)·공부상서·집현학사 등 주로 문한관을 역임했다. 유결은 외생서(外甥壻)인 왕영(王英)이 읊은 ‘금계육현(金溪六賢)’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¹⁰² 잦은 언사(言事)로 인해 배척을 받자 사직하고 의양산(宜陽山)으로 들어간 뒤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다.¹⁰³

100 이색은 원에 사행을 갔다가 마침 산둥 태안지역에서 백성을 구휼하고 鳳凰山(산둥 臨沂縣)에 들른 傅亨을 만나 이를 시로 남겼다. 「奉送傅子通應奉使東平 賑濟客戶 因過鳳凰山」(『牧隱詩藁』 卷3). 여운필 외 역, 『역주 牧隱詩藁』 第2卷(월인, 2000) 145 쪽 각주399에서 傅亨을 고려 문신으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이다.

101 이를 蕭啓慶은 “원대 과거제도 아래의 師生 동년 관계는 한족 왕조시대에 비해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첫째, 다민족군을 범위로 하기 때문에 한족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둘째, 급제자들이 원대 관료사회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좌주와 문생과 동년의 관계는 정치를 주재하거나 군권을 위협하는 파벌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것의 주된 성격은 공동 문화 수양과 품성에 기반한 우정이었다.”라고 했다. 蕭啓慶, 「元代科擧中的多族師生與同年」, 『中華文史論叢』 (2010年 第1期), 58쪽.

102 王英, 『王文安公詩文集·詩集』 卷1, 「六賢咏」.

103 王英, 『王文安公詩文集·文集』 卷6, 「尙書劉公畫像贊有序」.

이인복의 입장에서 특별히 지난 호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포함 정도였으니 그들의 관계가 상당히 막역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로의 시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서에 등장하는 배주(고려명 韓復)이다.¹⁰⁴ 그의 자는 명선(明善), 손도사씨(遜都思氏)로 몽고인이다. 국자생으로서, 1335년(후지원 원년)과 1341년(지정 원년)에 대도 향시에 두 번이나 합격한 뒤, 1342년 임오과에서 우방 장원으로 합격했다. 원 조정에서 병부원의외랑·납대어사·산동염방사첨사·추밀부사까지 역임한 인물이었지만, 1370년(공민왕 19) 이성계가 요녕성의 울랄산성(兀剌山城·五女山城)을 함락시켰을 때 포로로 잡혀와 이후 고려에서 여생을 마쳤다. 그의 능력을 높이 산 공민왕으로부터 한복(韓復)이라는 고려 이름과 함께 고려 관직(判司農寺事·大匡西原君·進賢館大提學)을 제수 받았다. 그는 과거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문(程文, 과거문) 작성법을 지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도 한다. 그가 어떤 과정으로 포로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장원급제자로서 귀국의 이인복과 동년임을 밝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인연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이인복은 검교시중(종1품)에 임명되어 중앙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였다. 개경으로 온 배주가 이인복과 해후하고 옛 정회를 풀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14세기를 무대로 문단과 정치계에서 활약한 초은 이인복의 시문

104 『고려사』 권112, 열전25, 「韓復」.

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그의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이인복은 충숙왕과 충혜왕의 중조 시대를 관통한 인물이었으며, 충혜왕에 대한 직언과 목숨을 건 소신 있는 행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이조년의 손자였다. 이인복은 조부의 강인한 정신과 의를 향한 실천력을 경모하고, 자신의 길잡이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그의 성품을 ‘강직’과 ‘진중’으로 정리했다. 그의 강직함은 절개와 공명정대함으로, 진중함은 근후한 행동과 간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의 문학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었다. 즉, 정밀히 연구하고 널리 공부한 뒤, 고심을 다해 문장을 가다듬으면, 말과 뜻이 엄중하고도 심오해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말은 엄밀하고 뜻이 바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인복의 정치생활에서 두 가지 키워드는 원 제과 응시, 조일신의 난과 이후 행적이었다. 문란했던 고려의 인사정책을 피해 곧장 원 조정에서 승부를 보고자 한 이곡의 예에서 보듯 제과 응시는 당시 고려 문인들에겐 인생 전환의 기회였다. 그런데 이인복의 경우는 같은 향리 출신 가문이었지만, 조부 이조년의 활약과 이인복 형제들의 무더기 문과 급제를 통해 신흥명 문가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중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인복의 경우, 여타 응시자와는 다르게 조부의 낙향과 충혜왕의 성정상 이후 벌어질 수 있는 환란을 피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능력을 검증받아 가문의 위기를 정면돌파해보자는 의도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의 총신이 되었으며, 공민왕 5년 기철 일파 제거로 시작된 본격적인 반원정책으로 야기된 원과의 마찰을 사신으로 파견되어 훌륭히 수습하는가 하면, 당시 원 조정의 최고권력자로 떠오른 보루 테무르와의 면담에서 감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14세기 고려 정계 한 가운데에서 활동했지만 현존하는 시문은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총 23제 29수의 시와 산문 3편이 전부이

다. 이를 토대로 그의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추적해본 결과, 첫째, 정치 선배에 대한 존경과 예의. 둘째, 개인적 친분과 동료로서의 교우. 셋째, 중국 문인과의 만남과 인연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만장과 묘지명이 총 7제로 전체 시문의 30%에 달한다. 창작 대상은 보더라도 이제현, 이암, 이언충의 부인, 요양현 삼한국부인, 한중유, 왕후, 유숙 등으로 당시 굵직한 인물들이었다. 또한 이곡과는 제과 급제 후 대도에서 만나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대녕로 금주관관 재직 시 이국 생활의 고초를 위로하고 조언을 받았으며, 귀국 후에도 원에 올릴 글의 수정을 부탁하는 등 깊은 인연을 쌓았다. 이는 아들 이색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이색은 이인복과 두 번이나 과거를 함께 주관하며, 그의 인간됨이나 문장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으며, 묘지명까지 지었다. 특히 동생과 부인 등 가족이나 제자들과도 유대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각별했다. 또한 제과 급제 선배로서 안축, 정치적 동지였지만 신돈의 음모로 낙향해야만 했던 울분을 함께 한 유숙, 경계와 당부의 시를 지어준 유탁, 이거인, 박의중, 한철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 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문인데, 사신으로 왔던 설사와 곽영석, 그리고 임오년(1342) 제과 동년이었던 마언휘와 부형, 유결, 배주가 있었다. 이인복은 원 조정에서 한림승지, 태상박사 등 문한직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을 향해 시를 부치면서 그리움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몽고인 배주, 색목인인 마언휘, 한인인 부형과 유결, 그리고 고려인 이인복. 종족은 달랐지만 문한을 중심으로 엮어진 그들의 교유는 14세기 한중 문인 교류사의 색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 『高麗史』, 『高麗史切要』, 『元史』, 『東文選』, 『星山李氏派譜』, 『增補文獻備考』.
閔思平, 『及菴詩集』.
卞季良, 『春亭續集』.
徐居正, 『東人詩話』.
沈守慶, 『遣閑雜錄』.
楊翮, 『佩玉齋類稿』.
王英, 『王文安公詩文集』.
李穀, 『稼亭集』.
李穡, 『牧隱集』.
李崇仁, 『陶隱集』.
李裕元, 『林下筆記』.
李瀾, 『星湖僊說』.
安軸, 『謹齋集』.
丁復, 『檜亭集』.
崔瀆, 『拙藁千百』.
韓致雍, 『海東繹史』.

2. 단행본

- 高惠玲, 『高麗後期 士大夫와 性理學 受容』, 一潮閣, 2001.
이개석,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2013.
이승환, 『고려왕조의 위기, 혹은 세계화시대』, 푸른역사, 2015.
_____, 『몽골제국의 쇠퇴와 공민왕 시대』, 푸른역사, 2019.
桂棲鵬, 『元代進士研究』,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2001.
牟復禮·崔瑞德 譯, 『劍橋中國明代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余來明, 『元代科學與文學』,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13.
蕭啟慶, 『元代進士輯考』, 臺北: 中研院史語所, 2012.
劉海峰, 『科學制度的終結與科學學的興起』, 武漢: 華中師大出版社, 2006.

舒健·張建松, 『韓國現存元史相關文獻資料的整理與研究』. 上海: 上海大學出版社, 2015.

3. 논문

김난옥, 「공민왕대 후반 여명관계와 장자온·설사」. 『사학연구』 제131호, 2018, 167-200쪽.

裴圭範, 「원나라 文人 僕遜의 歸化와 現傳 작품」. 『경희어문학』 34집, 2014, 1-17쪽.

裴淑姬, 「元代 科擧制와 高麗進士의 應擧 및 授官」. 『東洋史學研究』 第104輯, 2008, 121-154쪽.

_____, 「13-14세기 귀화인의 유형과 고려로 이주」. 『역사학보』 제233집, 2017, 1-37쪽.

_____, 「宋元代 科擧를 매개로 한 同年關係와 同年간의 交流」. 『東洋史學研究』 第132輯, 2015, 35-67쪽.

손갑호, 「麗末文人 樵隱 李仁復의 文學世界 研究-東文選 收錄 作品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정동훈 「고려 공민왕대 대중국 사신 인선의 특징」 『동국사학』 제60권, 2016, 121-164쪽.

李文勝, 「論元代延祐科擧的意義」. 『北方論叢』 2015年 第1期. 73-79쪽.

李新峰, 「明前期赴朝鮮使臣叢考」. 『明清論叢』 第4輯, 2003, 81-92쪽.

蕭啓慶, 「元代科擧中的多族師生與同年」. 『中華文史論叢』 2010年 第1期, 36-58쪽.

鄭紅英, 「朝鮮初期與明朝的使臣往來問題探析」.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年4月 第45卷第2期, 135-140쪽.

秦新林, 「試論元代的科擧考試及其特點」. 『殷都學刊』 2003年02期, 40-44쪽.

4. 인터넷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DB(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DB(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index.jsp).

국문초록

본고는 1342년 원 제과(壬午科)에 급제한 이인복(李仁復)의 시문을 토대로 그의 삶과 인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자 시작되었다. 우선 이인복은 조부 이조년(李兆年)의 강인한 정신과 의를 향한 실천력을 경모하며 자신의 멘토로 삼았다. 그래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강직(剛直)하고 '진중(鎭重)'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의 정치생활의 기반이 되었고 군주와 국가를 향한 한결같은 충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의 제과 응시는 충혜왕에게 직언하다 뜻을 거슬러 낙향한 조부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었다. 혹시 모를 가문의 환란을 막고 대외적 능력 검증을 통해 도약했다는 점에서 신의 한수였다. 이후 조일신의 난, 기씨 일파 주살과 반원정책, 원의 공민왕 폐위 책동 등을 거치면서 공민왕의 충신으로 활약했다. 현존하는 시문에 드러나는 그의 인적 네트워크는 정치 선배에 대한 존경과 예의(李齊賢·李崱·韓宗愈·王煦 등), 개인적 친분과 동료로서의 교우(李穀·柳淑·李穡·柳濯·林宜中 등), 제과 동년과 사신인 원 문인과의 만남과 인연(曷斯·郭永錫·馬彥羣·傅亨·劉傑·拜住)으로 나눌 수 있다.

투고일 2019. 12. 16.

심사일 2020. 2. 7.

게재 확정일 2020. 4. 29.

주제어(keyword) 제과(制科, Imperial State Examination), 인적 네트워크(International Relationship), 이곡(李穀, Yi Gok), 이조년(李兆年, Yi Jo-Nyeon), 동년(同年, Tongnyen)

Abstracts

Yi Yin Bok(1308-1374)'s Political career and Human Network in the late Goryeo dynasty

Bae, Kuy-beom

This paper analyzes the poetry of Yi In-bok, who passed the Yuan Dynasty's imperial state examination held in 1342, to recreate his caree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Yi revered his grandfather, Yi Jo-nyeon, for his strong spirit and righteousness and looked up to him as his mentor. The upright and prudent character he strove to build and the consistent loyalty he accordingly maintained toward the king and his country became the basis of his political career. His choice to take the imperial examination was related to his grandfather's return to his hometown after being forthright to the king, as it could prevent the calamities possibly befalling his household as well as jumpstart his career by demonstrating his abilities. Throughout the hardships that hit Goryeo one after another—the rebellion of Jo Il-sin, the execution of the Gi family, anti-Yuan Dynasty policies, and the Yuan Dynasty's machinations to depose King Gongmin—he faithfully served King Gongmin. The analysis of his poetry shows that hi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following: respect and propriety towards seniors in politics, personal friendships with his companions, and encounters and correspondences with his *dongnyeon* (同年), fellow examinees who had passed the imperial state examination that same year, as well as envoys from the Yuan Dynasty.

